

계시록 2장 네 가지 메시지

계시록 2:1-3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신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2:1)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모든 메시지에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각 메시지들이 모두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는 것이고, 1장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로 시작되는 말씀은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이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2:2)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일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 이면에 있는 동기까지도 알고 계신다. 어떤 행위들은 다 타버리고 말 것인데, 헛된 영광(남에게 보이려고)을 구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6:2, 5)고 말씀하셨다. 언젠가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 즉 행위의 종류와 태도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계2:23; 20:13)

주님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2:2)

초대교회에는 각 교회를 순회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도들이었고(그들은 스스로 사도임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로서 각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사역했다. 이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교회를 방문해 제멋대로 행함으로써 교회에 큰 문젯거리였다. 이런 일에 대비해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책자가 나올 정도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와께서 ‘큰 칠면조 요리를 준비하라’고 하셨다”면서 칠면조 요리를 먹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인 것이다. 또한 어떤 자가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에게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역시 거짓 선지자이다. 순회하는 목회자들은 원래 이들 동안 머물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머무르면서 자꾸 무언가를 끌어내려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이러한 조언들은 순회 목회자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교회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거짓 사도인 자들을 잘 분별하였다. 주님은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의 영적 순결도 칭찬하셨다. 에베소 교인들은 악한 것을 행하지 않았고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2:3)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적인 교회였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지 않았으며 인내하고 잘 분별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다.

계시록 2:4-5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2:4)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활동은 잘하고 있었으나 사랑은 잊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부담, 습관, 형식, 의식 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성직자로서의 봉사가 하나의 직업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5:14)라고 했다.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13:1, 3)

우리는 맡겨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몰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혹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수께서는 비록 네가 이 모든 일을 다 했을지라도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2:5)

많은 사람들이 “저런, 당신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군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처음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리는 것’이다. 만일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찾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3R로 불리는 이 방법은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Remember)하고”, 즉 전에 가졌던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Repent)하며, ‘반복’(Repeat)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 행위, 곧 처음 사랑의 행위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처음 행위를 반복하는데,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한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교회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교회가 회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교회는 두 곳뿐이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2:5)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다. 그 자리는 어디인가? 그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다. 그분은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교회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다.

불행히도 오늘날 교회는 당파, 분쟁, 분열 등으로 가득 차 있어 많은 경우에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져 있다. 교회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분쟁과 온갖 압력과 긴장들을 느끼게 된다. 주님은 “나는 사랑이 없는 교회에는 있지 않겠다”고 하셨다.

계시록 2:6-7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2:6)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헬라어 ‘니카오 라오스(nikao laos)’에서 나온 것으로 ‘성도(laos:백성) 위에 제사장의 교권을 세우는 것(nikao:지배하다)’을 의미한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서열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는데, 주님은 이를 두고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하셨다.

왜 그런가?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두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분께 이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오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을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것을 싫어하신다. 모든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라고 말씀하셨다.

각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모든 교회마다, 심지어 타락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2:7)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과실나무들을 주셨다. 그 가운데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로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즉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법한데, 정작 생명나무의 열매 대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왜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먼저 선악과를 먹었는가? 아마도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원한다면 생명나무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 어려움, 질병들을 모두 아담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 그들은 지식을 자기의 신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육신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는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고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동산 위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창2:9, 16-17; 3:24)

그룹들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낸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러한 타락과 죄 지은 육신으로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어리석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들을 두어 동산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긍휼을 심판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산 입구에 그룹들을 세워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보호하기 위함이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 중앙에 있다. 이기는 자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우리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요한이 사망할 때까지(약 A.D. 99년) '사도 교회'로 존재했다. 요한이 계시록을 저술할 시기만 해도 초대 교회에는 처음 사랑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다.

초기에는 열정이 뜨거웠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 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강권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점점 식기 시작했다.

계시록 2:8-9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이후에 생겼는데, 그 후 2세기(2-4세기) 동안 있었으며, 로마 정부의 잔악한 박해를 겪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한 로마의 박해 아래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은 약 6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2:8)

여기서 '사자'라는 말이 교회의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요한의 제자로서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Polycarp)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는 90대의 나이에 순교했는데, 로마 정부는 그를 화형에 처했다. 화형 집행관이 "나도 당신 같은 늙은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보기 싫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당신을 놓아 주겠소. 그러면 당신은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오"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8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그동안 예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나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화형으로 인한 고통을 상기시키며 위협하는 집행관에게 그는 "네가 당할 불보다는 뜨겁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드디어 집행관이 장작에 불을 붙였을 때 불꽃은 폴리갑의 몸을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을 본 집행관은 창으로 폴리갑을 찔렀고 쏟아져나온 피로 인해 불이 꺼졌다. 사람들은 폴리갑의 시체를 가져다가 기독교 식으로 장례를 치러 주었다.

박해와 시련을 당해야 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했으며, 심지어 교회의 감독마저 순교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양육하고 목회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양무리와 함께 시련과 고통을 나누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2:8)

서머나 교회가 순교를 당해야 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일깨우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11:25). 예수님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죽음을 이긴 승리를 일깨워 주심으로써 죽음에 직면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 것이다.

서머나 교회에 요한은 글로써 전하고 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2:9)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과 대조를 이룬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요하다"고 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궁핍하다"고 하셨다.

때때로 우리의 평가 기준과 주님의 그것이 다르다. 서머나 교회가 자기를 평가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궁핍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느냐.”(약2:5)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2:9)

초대교회가 당한 박해는 대부분 유대인이 선동하고 부추긴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각 성에서 그를 대적하도록 선동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국적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우리도 변절하여 유대인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회당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는 누구의 자손인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 주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하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나를 증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요8:31-47)라고 하셨다.

계시록 2:10-11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2:10)

주님은 교회가 당할 모든 시련과 박해 뒤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요16:33)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고 악한 행위 뒤에 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2:10)

여기서 ‘십 일’이란 로마 정부가 행한 열 차례의 큰 박해를 가리키는 것 같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거나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아 깨끗하게 될 교회이다. 그들은 순교하며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은 결코 교회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교회를 깨끗케 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셨다.

생명의 면류관 외에 의의 면류관도 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딤후4:8)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는 온 세상이(그리스도인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때를 말한다. 이 때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불뿔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20:6)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사단은 천 년 동안 묶여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된다. 그 천 년 동안 예수님은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때 교회는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천 년이 끝날 때쯤 사단은 잠깐 풀려나서 열방을 속이려고 다시 세상을 구석구석 돌아다닌다. 사단은 큰 무리의 군대를 모아 그리스도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려고 한다.

때때로 교인들이 내게 묻는다. “천 년이 다 끝날 때쯤 제가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물음에 나는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는 새로운 육체가 될 것이고, 따라서 그 때에는 결코 사단에게 현혹될 리가 없다.

천 년 왕국의 마지막 때, 즉 사단이 잠깐 놓일 때, 천 년 왕국 통치 기간 동안에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일시적인 믿음의 시련이 올 것이다. 마귀의 유혹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를 것인지를 시험하는 때이다. 놀랍게도 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반할 것이다.

계시록 2:12-17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신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2:12-13)

버가모 시는 우상 신을 관능적으로 숭배하던 도시였다. 하지만 이방 우상 숭배가 극심한 버가모에서도 충성스런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방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교회의 일원이었던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버가모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셨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2:14-15)

이방의 우상 숭배는 가장 가증스러운 관행으로 그 특징을 이루어 왔다. 이교 신전에는 여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매춘부였으며 신전의 대부분의 재정은 이 매춘으로 충당되었다. 그들의 종교 의식에는 여제사장들과의 성적 난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죄악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믿었고 따라서 육체에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많은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영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종류의 음탕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 경고했다.(벧전4:1-3)

버가모의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입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어찌되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교도 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고집했다. 이것은 발람의 교훈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게 만드는 죄악이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는 말은 성직 제도를 세우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미워하노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것이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2:17)

‘감추었던 만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요6:35)라고 하셨다.

‘흰 돌’은 인정 또는 승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투표할 때 흰 돌은 ‘찬성’을, 검은 돌은 ‘반대’를 의미했다. 오늘날에도 어떤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비슷한 용례를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회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흰 공이나 검은 공을 투표함에 던지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검은 공을 던지면 그 신청자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두 가지 죄악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우상 숭배와 성직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버가모 교회 시대는 316년 콘스탄틴 황제의 통치 아래 기독교가 승인되어 발전하면서 형성되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시작이었다.

계시록 2:18-22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셨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2:18)

성경에서 주석은 심판을 상징한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2:19)

두아디라 교회는 하는 일들이 많았다. 두아디라 교회는 가장 활동적인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 같은 훌륭한 특징을 지닌 교회였다. 그러나 주님께 다음과 같이 책망을 받았다.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옹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2:20)

‘이세벨’은 교회에 우상을 들여와 영적 간음을 행하게 한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2:21-22)

‘교회가 대환난을 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일부 교회는 대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이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 곧 영적 간음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대환난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회개치 아니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교회에 예수,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의 형상을 꾸며 놓는가?

계시록 2:23-29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끼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2:23-29)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져 있다. 철장은 왕국 시대의 지배 형태를 나타낸다. 사람들은 선한 일만 행하도록 강요될 것이며, 우리의 의무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교회로서 그 의를 실현하는 것이다.